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66.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행사

2014. 04. 0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묘하게 생긴 짐승에 대한 계시의 일부를 살폈습니다. 오늘도 13장에 계시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3:5~9]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 조합 짐승으로 상징된 한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주역이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정권과 교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내면 정치권력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인 허물을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는 소위 합법적 핍박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계시라는 뜻이었지요?

답: 예,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이 짐승, 나라는 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참람된 말을 한다고 기록했지요. 참람된 것은 사람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 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역사에서 찾아보면 정체를 알 수 있겠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왕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실들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참람된 칭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성경과 관계된, 즉 성경의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으로서 그런 경우가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과 관계된 것을 중심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예,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역사에 있는지요? 옛날 제국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답: 예, 먼저 쉽게 로마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즉위하여 신성의 대우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엄자라는 뜻으로 신에게 붙인 칭호였습니다. 율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그라우디우스, 베스파시안, 티투스 등 이 황제들은 죽은 후에 로마 의회가 아마 원로원이겠지요. 공식적으로 신성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를 도미니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는데, 그것은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도미시안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밧모 섬으로 유배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황제들이 금속 주화를 만들면서 신성한 신을 뜻하는 디부스(DIVUS)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했는데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국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참람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황제의 신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간접적입니다. 더 직접적인 것이 역사를 찾으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살핀 같은 내용인데요, 편의상 여기서 다니엘서 7장 25절의 기록과 계13장의 조합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을 대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세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요.

다니엘서 7장 20~26, 8:9~14

계시록 13장 3~7

큰 말하는 입 있다.

참람된 말하는 입이 있다.

성도들을 괴롭힌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훼방한다.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

마흔두 달 동안 일한다.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고 주장한다.

두 곳을 비교하니깐 동일 세력인 것이 분명하지요.(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존속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벌써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 하나님을 훼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들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느냐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은 아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살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권국을 형성한 세력임을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청취자들 중에는 상당히 낮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 성경구절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계13:5,6]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까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교권세력은 그 수장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치리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지요. 일곱 교회에 대하여 공부할 때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기록된 성경말씀을 떠나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내용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단호히 기록했습니다.(신4:2) 성령이 교회를 치리한다는 말은 교회는 오직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 가지 말라고 했지요. 읽어봅시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요이 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지내쳐라는 말은 파라바이노인데, 반대하여, 또는 거슬러서, 또는 지나가버려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성경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교회의 권세라고 하며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정경이 아닌 그냥 읽어서 유익한 책이라고 한 것을 정경으로 편입시키고, 제7일 안식일을 첫째 날 주일로 바꾸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한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서 십계명에서 제하여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다 참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을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함께 쥐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참람된 말을 하는 것이지요.

4.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과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며 성도가 그의 손에 붙인바 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에 같은 일이 있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답: 예, 목사님이 다니엘 7:25의 말씀을 지적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이 같은 기간에 대한 기록이 일곱 번 나타난다는 것은 몇 번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고 했는데, 이 권세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함으로 하나님을 훼방합니다. 이 사실은 살후2:4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살후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칭호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지상 대리자로 오신 분은 성령이신데, 자기를 성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존재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기록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까요?(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교황)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보전하고 있다.”(교황 레오13세의 회칙

문 304) 이것은 1894년 6월 20일에 발표한 회칙입니다. 회칙(回勅)이라는 말은 전 교도들이 읽도록 내린 칙서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교들에게 보냅니다. 주교들은 자기 관할 교회에 이것을 발표해야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교황을 지상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지요. 참람하지 않습니까. 이 선언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보다 더 직접적이지요. 한국의 서양사 학자 이해남 교수는 그의 저서 세계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 교황 레오(Leo) 1세는 훈족 왕 아틸라(Attila)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452), 대 교황 그레고리1세(Gregory 560-604)는 롬바르드(Lombard)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 보았다.”(이해남, 세계사, 서울 탐구당, 1950, 79).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동서로마를 통일하고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1300Km나 떨어진 곳에 도시를 축성하고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이름 짓고 천도를 하면서 로마에 남아 있는 로마 교구장에게 세속적 권세가 유산으로 계승되어진 셈이지요. 이해남 교수는 이 사실을 그의 세계사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전에 앞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시 역사적 사건들도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오1세는 로마교회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아버지를 뜻하는 Pope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공부한 사실대로 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533년에 로마감독은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칙서를 내리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황제는 동로마제국의 군대로 하여금 아리우스파 교리를 신봉하는 동고트족을 로마에서 축출하여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이 방해 없이 실시되게 하였고, 또 프랑크의 페핀(Pepin)왕은 이탈리아에 내려가서 게르만족인 롬바르드를 정복하고 빼앗은 동로마제국의 총독의 영지를 교황에게 바쳐서 교황의 영토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페핀이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을 합법으로 인정해 준 교황에 대한 보답이었고, 곧 페핀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었지요. 교황은 이제는 다스리는 영토를 가진 정치적 왕도 되었으며 교황청은 정교를 아울러 권세를 가진 종교국가가 되어 온 세계 나라들에 대사를 보내는 분명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현재 사실이기도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와 페핀의 이런 역사적 사실로 전성기인 마흔두 달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11장에 프랑스혁명에 대한 예언을 공부할 때 이야기한 대로 교황 피우스6세가 포로가 되는 것으로 일단 예언적 기간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역사적 기간으로 1260년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이상이 5절 6절이 예언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5. 그런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짐승은 특징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지요. 이 짐승은 용과 함께 경배를 받습니다.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었잖아요. 이 짐승이 세상에서 행사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용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정치적 권세일뿐 아니라 종교적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 것이지요. 경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프로스쿠네오인데요. 예배라는 말입니다. 용과 이 짐승은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는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력으로 세상을 정복

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은 전쟁을 하지 않고 성립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식민지가 없지요. 그러면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가 주장하는 종교와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와 백성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순복하는 것보다 더 강한 종속적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주장하는 종교와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흔두 달 동안 온 유럽이 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지요.

6. 그런데 목사님, 3절에는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고 또 그 상처가 나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3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다른 구절들을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루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순서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적 차례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된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된 이 존재가 4~8절에 기록하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8에 기록한 그 존재가 언젠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는 존재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7. 예,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록한 내용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고 다른 머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예, 그 문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3절에는 머리 하나가 상했다고 기록했는데, 10절에서 3절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지요.

[계13: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고하여 머리가 상한 것이 짐승 자체가 상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14절에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하여 머리가 상한 것 자체가 짐승이 상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가 상하면 짐승이 상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든지 열이든지 그 중에 한 머리가 상해도 짐승이 상한 것입니다. 다른 머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데 궁금증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가슴이 상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자체가 상한 것이지요. 다른 일곱 머리에 대한 문제는 17장에 다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2장과 13장과 17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요. 17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13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다는 말이 도살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에스파그메넨”인데요, 계5:6에 예수님에 대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와 꼭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했지요.(사53:7) 그러니까 5:6에 짐승을 도살한다고 할 때 쓰는 낱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요. 예언의 성취를 낱말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

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되었으나 이 짐승의 머리는 세상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긴 세월을 통치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계6:9, 18:24에 성도들의 죽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7. 목사님, 문제는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답: 예, 아까, 요한이 3절을 말한 다음에 그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설명을 4~8까지 했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마흔 두 달 동안 하나님을 휘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세력이 망하게 되었다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상한다는 말이 도살할 때 쓰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칼에 죽이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칼로 죽이는 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짐승으로 상징된 세력이 군사력에 의하여 권세가 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과연 그대로 마흔 두 달 기간이 끝나는 1798년 2월 15일 피우스6세가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서 즉위 2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혁명 프랑스 정부의 지시를 받은 알렉산더 베르띠에 장군이 그 장소에 들어와서 피우스6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앞으로 어떤 기능도 행사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교황의 자리를 계승할 수 없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80세나 된 피우스6세는 발랑스(Valence) 요세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 이듬해 1799년 8월 29일에 옥사했습니다.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정권을 잡은 다음에 1801년에 로마교회의 모든 감독을 사임하게 했습니다. 1803년에는 독일을 침입해서 교황령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살던 300만 교인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것이지요. 이 조직이 재기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었지요.

8.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그래야 하겠지요.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 나라는 상처가 회복되면서 그 세력이 상처를 받기 전보다 더욱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앤드류스 대학의 맥스웰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지요. “1929년 베니토 뭇솔리니는 교황 비오11세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성 베드로 사원을 포함한 108.7에이크의 바티칸 시를 교황령으로 하는 교황국가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교황은 다시 사제와 군주를 겸한 권력자가 될 수 있었다. 죽게 된 상처가 치료되고 있었던 것이다.”(맥스웰, God Cares 2권 346) 맥스웰은 날짜를 적지 않았는데, 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6월 7일에 비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티칸 시 라테란 궁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라테란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지(紙)는 “상처가 나움에 대하여서는”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이 종교국가는 온 세상의 국가들과 대사를 교환하고 정치적으로 완벽한 재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개신교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개신교국이 아닙니다. 기독교 단일 교단의 교인 수로 카톨릭이 가장 많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1951년 10월 20일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 임명 동의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 아주 신랄한 항의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3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윌리엄 윌슨을 주 바티칸 주제 미국 대사로 임명했을 때 의회는 아주 쉽게 승인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나라가 미국처럼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모습입니다. 피우스6세가 잡혀가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조처를 취하였을 때 정말 재기불능이 아닐까 생각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나라는 세상에서 도덕적 대변가로 신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상처를 받기 전보다 더 확장된 세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9. 참 신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신문의 표현은 더 기막히네요. 그런데 온 세상이 따르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 8절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답: 예, 8절을 읽어봅시다.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에서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짐승과 죽임을 당한 어린양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에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중에 맞을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10.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13장에서 경배 받기를 바라는 두 세력에 대하여 잘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곧 용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귀를 주셔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